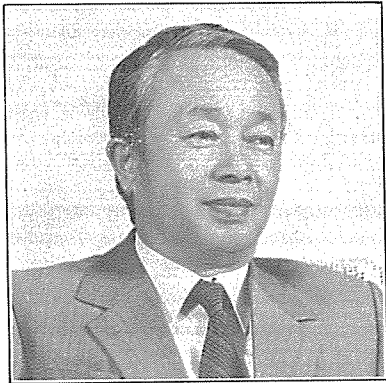


# “모든 科學技術人은 國家發展의 嚮도”



朴 泰 源 회 장

科學技術處長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역사적인 第6共和國의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오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제13회 정기총회를 갖게 된 것을 과학기술계 元老·先輩 그리고 代議員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聯合會는 국가와 사회의 지대한 관심속에 지난 1966년 창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科學技術 暢達과 振興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成年으로서의 내실있는 발전을 기약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民主福祉國家 建設에 주역이 될 백만 과학기술인의 叡智와 奉仕와 獻身을 다시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科學技術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福祉社會建設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2千年代 科學技術發展 長期計劃”을 수립하고 세부방안을 실천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투자규모의 확대등 技術戰爭과 資源民族主義에 대처하기 위한 회기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더우기 우리로서는 第6共和國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선진국들의 國際政治 및 經濟的 力學關係의 미묘한 변화에 그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더욱기세를 높이고 있는 技術保護障壁을 비롯한 物質特許 그리고 知的所有權 문제와 保護貿易主義의 강화 등 일련의 피할 수 없는 요인들이 우리들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사정이 그 어느때 보다도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본연의 研究開發姿勢와 科學技術의 振興·暢達에 총력을 기울여 精進한다면 우리의 미래를樂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동안 우리 科學技術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호협력의 자세로 이를 이겨내면서 특히, 産·學·研의 조화있는 모색을 통한 學會學術活動을 활성화 함으로써 연구능력이 국제수준에까지 이를 정도가 된 것은 오직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勞苦의 結晶이라고 하겠으며 尤호적절한 政策의 뒷받침에도 크게 힘 입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만해도 政府가 學會學術活動의 활성화를 위하여 4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도 基礎科學의 육성과 學術振興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7월에는 우리 聯合會가 주축이 되어 “제10차 國內外 韓國 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를 미국·독일·영국·불란서·일본·캐나다 등에 거주한 동포과학자들이 참석하는 汎세계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國內外 4,000餘 科學技術人들이 學術情報를 교류하고 상호연계체제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고급두뇌의 國內誘致와 産業技術開發 등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科學技術情報의 수집과 공급을 목적으로 “科學技術專門圖書室”을 운영하는 한편 元老科學技術諮問團을 활성화하고 尖端科學技術動向과 정보의 교환은 물론 국민생활의 科學化 運動을 전개하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誌를 발간 보급하여 왔습니다.

한편 會員團體와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學術活動을 더욱 촉진하여 學會發展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국제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在外科協을 육성 지도함으로써 高級人力의 國內 유치 알선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科學技術者가 應分の 대우를 받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풍토의 조성과 2000년대 科學技術投資規模를 GNP대비 5%선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줄것과 大學과 研究所에서 연구활동이 활성화되고 學會를 중심으로 학술활동이 활발히 추진되어 基礎研究와 高級人力養成을 이룩할 수 있는 대책을 비롯한 科學技術處의 격상문제와 科學技術關係法令의 정비 등 당면한 제반시책을 정부당국과 관련기관에 직접 건의함으로써 우리들의 總意가 반영되어 어느정도 실현 약속을 받은 부분도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科總 20年史」를 발간하여 지난날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립하고 創立精神을 가다듬음과 동시에 元老들의 노고를 되새긴 바 있으며, 우리들의 오랜 숙원인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부지의 公園用地解除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제는 단계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年次的으로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데 대하여 특별히 이자리를 빌어 우리 科學技術人 모두의 감사한 마음의 뜻을 盧泰愚 大統領께 올리면서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우리 科總 任職員과 國土計劃學會 그리고 建築學會 任員은 물론 國會 조경목, 이진, 강용식 議員과 관계의원 그리고 이창보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科學技術處, 서울특별시, 건설부 당국과 關係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988년의 새해 사업을 확정짓는 뜻 깊은 이자리에서 우리 모든 科學技術人들은 스스로가 국가발전의 향도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다듬고 국가와 민족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통감하면서 모든 국민의 의식속에 創造와 能率 그리고 合理的 精神이 심어지고 科學者와 技術者 그리고 技能人이 대우받는 풍토가 이룩되도록 다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더우기 오는 9월에는 역사적인 “88서울올림픽”의 개최 등 國運의 앞날을 가늠하는 大事가 우리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百萬 科學技術人은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을 한층더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科學技術處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관련기관 그리고 산업계, 언론계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元老·先輩·同僚 그리고 代議員 여러분의 건강과 家庭에 항상 萬福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朴泰源